

보도분류	브리핑() 보도자료 제공(✓)
보도일시	2022. 11. 17.(목) 22시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작성과	서비스산업유치과
담당	과장 안도현, PM 김성수(032-453-7031, 7343)

IFEZ에 유럽한인문화타운 조성... 유럽한인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

유럽한인문화타운 조성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...유럽 스타일 건축물로 관광집객시설 역할 연합회, “첫 공식 이민 시작된 인천에 재외동포청 설립돼야” 밝히며 긴밀 협조 약속

-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 내에 유럽 재외국민들의 귀환 거주를 지원하기 위한 유럽한인문화타운 조성이 본격화된다. 또, 유럽 한인들이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.
- 인천광역시는 11월 17일(현지 시각)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‘유럽한인문화타운 설명회’를 개최하고, 유정복 시장과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이 ‘유럽한인문화타운 조성을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’를 체결했다고 밝혔다.
- 이날 설명회에는 유정복 시장과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해 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장 등이 참석했으며, 상호 협력 양해각서 체결, 유럽한인문화타운 구상 발표,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선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.
- 이번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인천시와 유럽한인총연합회는 유럽한인문화타운 조성 및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.

- 1990년 9월 공식 창립된 유럽한인총연합회는 25개 유럽국가의 한인회가 가입돼 있는 연합단체로 지난해 기준 약 3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, 유럽한인 공식행사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.
- 이날 설명회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럽과 한국 문화·교역의 거점이 될 유럽한인문화타운 및 비즈니스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.
- 이들 타운은 유럽 등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귀환 거주를 지원하고, 유럽의 명품 소공인(小工人 : 작은 규모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기업) 산업 및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.
- 특히, 타운에 들어설 3~4층 규모의 상가 주택단지(1층은 상가, 2~4층은 상가, 주거, 또는 숙박시설) 등 건물은 유럽 스타일로 건축해 단지 전체가 관광 집객시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된다. 또 유럽이민역사 박물관 등의 문화 집회시설도 포함된다.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앞으로 사업 형식과 위치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.
- 한편, 유럽한인총연합회는 ‘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선언문’을 통해 △인천시에서 첫 공식 이민이 시작됐고, △하와이 이민자들의 성금으로 인하대학교가 세워졌고 △이민사 박물관이 인천에 있으며 △재외동포와 협력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(IFEZ)이 있고 △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다는 점 등을 들며 구체적인 지지 이유를 밝혔다.
유제헌 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은 “정부의 재외동포청 설립 계획을 환영한다”며, “유럽 25개 국가의 한인회를 대표해 지지를 선언하며 향후 인천시와의 긴밀히 협조하겠다”고 약속했다.
- 이번 유럽한인총연합회의 지지 선언은 최근 행정안전부가 재외동포청 신설

내용을 담은 ‘정부조직 개편안’을 확정하는데 이어 유정복 시장이 인천이 최적 지임을 강조하는 등 인천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큰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.

-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IFEZ가 지난 19년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 등에서 거둔 괄목할만한 성과를 소개한 뒤 “앞으로 유럽한인총연합회와 함께 힘을 모아 유럽한인문화타운 조성과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- 유정복 시장은 “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민간 외교관이자 산업역군이며 특히 유럽 동포들은 국가가 어려울 때 파독 광부, 간호사 등 굵은 일을 마다하지 않은 애국자”라고 격려하고 “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지지해 준 유럽한인총연합회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”고 밝혔다.



▲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7일(현지시간)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'유럽한인문화타운 설명회'에서 유제현 유럽한인총연합회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.